



앤서니 킹의 『21세기의 시가전』

Anthony King. 2021. 『Urban Warfar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y. 288 pp.

미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논의에서 시가전에 대한 고민이 부상하고 있다. ‘블랙호크 다운’으로 상징되는 모가디슈(1993)에서부터 체첸전쟁의 전장이었던 그로즈니(1994~1995), 그리고 바그다드(2003)와 모술(2017)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중심은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 사회학자 출신인 군사전문가 앤서니 킹 교수가 시가전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가전은 총포 전쟁 아닌 이야기의 전쟁이다”

20세기 전쟁에서는 전선(front)이 있었다. 6·25전쟁에서는 서울과 대전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지만 낙동강 전선으로 대표되는 방어선이 존재했고, 전체적으로 전선을 유지하면서 전쟁이 전개됐다. 기동전의 전설을 제공했던 1991년 걸프전에서도 전선을 통해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그러나 21세기 전쟁에서는 전선이 사라지고 이제 ‘도시’라는 점(point) 중심의 전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도시가 전쟁의 중심이 되는 이유로 저자는 세 가지를 꼽는다. 우선 도시 그 자체가 정치경제적 중심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장악한다는 것은 깃발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반군이나 저항군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저항과 방어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병력을 차출할 수 있다. 건물 하나하나가 저항과 공격의 거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시 거주 주민 자체가 정칙적 군사적 인질로 사용된다.

더욱 정밀해진 무기체계도 군대를 도시로 밀어넣고 있다. 기동전에 유리한 개활지는 은폐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밀무기의 발전으로 적의 눈에 띄는 순간 표적이 된다. 군대 규모 축소도 중요한 요소다. 몇십만 명의 대군을 투입해 도시를 포위하던 시대는 지났다. 반군이 도시에 숨어들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도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술을 장악하고 있던 ISIS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9개월간 시가전을 펼쳐야 했다.

시가전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도시의 시작과 함께 시가전은 벌어졌다. 도시의 파괴라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반군 세력의 거점으로 사용된 것은 최근이다. 원래 반군의 온상은 밀림이나 외진 농촌지역이었다. 마오쩌둥과 체 게바라의 게릴라들이 활동했던 지역도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반군세력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의 약자가 강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대며, 21세기 분란전의 중심이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효과적인 방어벽을 제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존재다. 시가전을 펼치는 군대는 건물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저항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회적 집단 전체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사실상 주민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전투 결과는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가전은 군사학만으로 설명할



앤서니 킹은 21세기 전쟁에선 전선이 사라지고, ‘도시’라는 점 중심의 전투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해군의 UDT/SEAL 대원들이 한태평양훈련 중 시가지전투훈련을 하는 모습.

한재호 기자

상징적 의미 더욱 커진 ‘도시 장악’
건물 하나하나가 공격 거점 되고
방어도 유리…반군 본거지로 활용

21세기 전쟁의 대표적 형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도시 주민들
물리적 공격 포함 심리전은 필수
군사학 넘어 사회적 맥락 이해 필요

수 없다. 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어떤 도시에서는 저항이 치열한데, 어떤 도시에서는 협력이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전투 상황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거나 전 세계로 전송될 수 있다. 도시는 단순히 전투가 벌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정치경제적 거점으로서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집단과 여론이 경쟁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존재한다. 도시를 정치경제적, 체계적, 사회학적 공간으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세기 시가전도 ‘국지적인 방어체계의 연결’이라는 스탈린그라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은 건물 하나하나를 요새화해서 싸웠고, ‘적을 끼어안’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전투를 벌였다. 이런 식의 건물이나 구역단위의 미시적 포위전(micro-siege)으로 진화하고 있다. 건물벽 구멍을 뚫고 이동하거나 지하터널은 상식이다.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보여주듯, 수백km의 지하터널로 도시 전체를 연결해 두더지 같은 저항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밀유도무기는 특정 건물이나 개인차량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외과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정밀공격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도시는 더 이상 수평적인 공간이 아니다. 수직적, 입체적 전장이다. 공중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시가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시가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포격을 받은 건물에서 화염 기둥이 솟아오르는 장면이다. 그 전형을 보여준 것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다. 화염이 치솟는 장면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이미지는 항복과 도망심리를 촉발하는 심리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포격이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나 죄 없는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덕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아무리 정확한 타격이라도 도심 깊숙이 숨어 있는 저항세력을 뿌리 뽑지는 못한다. 결국 병력을 투입해 하나씩 ‘청소’할 수밖에 없다. 이때 투입되는 병력은 소규모로 분산해 기동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분절적 기동(fractal maneuv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1세기 시가전에서는 지형과 건물에 따라 병력을 소규모로 분절시켜 이동시킬 수밖에 없다. 적을 끼어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근접전이 불가피하다. 시가전은 수많은 근접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개인적 전투능력이 전략적 성과로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안정된 지휘통신체계가 보장된다면 소부대가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벌떼공격(swarming)’이 가능할 것이다. 벌떼공격은 네트워크 시대의 전형적인 전술로 소부대 전투와 결합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상대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단히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도시 주민들이다. 이들이 적과 아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 흐름이 결정된다. SNS를 통해 소문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winning hearts and minds)’ 내러티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전은 총과 포의 전쟁이 아니라 이야기 전쟁”이라고 강조한다. 작전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중-지상 작전뿐만 아니라 정보와 내러티브 작전도 병행해야 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몇 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검토하지만, 결국 모술에서 보여줬던 지리한 시가전이 전쟁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21세기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등장한 시가전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저술임에는 분명하다. 미래 전장환경을 고민한다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문헌이다.



필자 최영진은 국방전문가로 전쟁사, 전략론, 정신전력, 병력구조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